

“이웃과 함께...” 추석 앞두고 ‘나눔·상생’ 활짝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곳곳서
취약계층 ‘명절 특식’ 대접
생필품 전달·복지시설 위문
소상공인 판로 개척 행사도

복지관에서 추석맞이 취약계층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따뜻한 밥상, 이웃과 함께하는 정(情)’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 200명에게 ‘명절 특식’을, 300가구에 라면과 과일, 김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이 전달됐다.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전날에 이어 ‘2025 한가위 in 정(情)’ 행사를 개최하며 송편과 삼색전, 호박 식혜 등으로 구성된 음식들을 돌봄 이웃과 나눴다.
이웃 행사도 잇따랐다.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

롯한 남구 관계자들은 이날 지역 9개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임택 동구청장도 사회복지시설 및 보호단체 7개소를 찾아 생활인과 유공자들을 위로했다.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는 ‘상생 장터’도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선 ‘사회적경제&명장성공스쿨’이음장터가 개최됐다.
이곳 장터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9개소와 서구의 명장성공스쿨 참여 업체 3개소가 함께하며 추석을 맞아 선물용품을 판매했다.

오후 1시30분 북구청 광장에서도 전통시장·골목형상점이 상인회, 사회적기업, 고향사랑답례품공급업체 등 19곳이 참여하는 ‘추석 명절 상생장터’가 운영됐다.
이 외에도 광주 5개 자치구는 2일까지 다양한 나눔·위문·상생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상생장터 개최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공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들이 명절 연휴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민생 안정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장애인 향한 고향길 이동 차별 끝내야”

장차원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 촉구
광주버스터미널서 휠체어 탑승 시도
운행 지연에 일부 승객 불편 겪기도

에 휠체어 탑승 장비를 설치하고 2040년까지 전체 차량을 교체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연차별 이행 로드맵, 예산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리프트 버스 도입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제재·점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을 외면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실제 버스 탑승을 시도했으나 차량에 오르지 못해 한동안 운행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탑승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장애인 모두에게 가족과 고향이 있지만



1일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야외광장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시외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주성학기자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들이 금호고속과 정부에 시외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오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절마다 반복되는 차별을 끝내고 교통약자가 동등하게 고향길에 오를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올해 금호고속(현 금호익스프레스)과 광주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이 2023년부터 신규 도입 버스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 차별이 만든 단절이 다. 버스에 휠체어가 오르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위니아 3번째 도전 끝에 ‘회생절차 개시’

채권자 550여명·채무액 4천억 규모
대우위니아 그룹의 계열사인 위니아가 세 번째 시도 만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위니아는 지난 5·7월 서울과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됐다.
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조건부 인수계약서를 제출하며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 250여명 중 관리직 50명과 기능직 50명 등 최소 10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퇴직자에 대한 소정의 위

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니아의 채권자는 550여명, 채무액은 4천억 원 규모인데, 여기에는 2023년 10월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400억원과 협력 업체 대금 등이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니아는 회생 절차와 함께 김치냉장고 재생산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 다. /안재영기자

‘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5·18 펴낸 징역 6개월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그 전에 했던 5·18민주화운동 펴낸 행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파고드는 펴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낙담히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A씨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설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에서의 5·18 펴낸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5·18민주화운동에 빗대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안재영기자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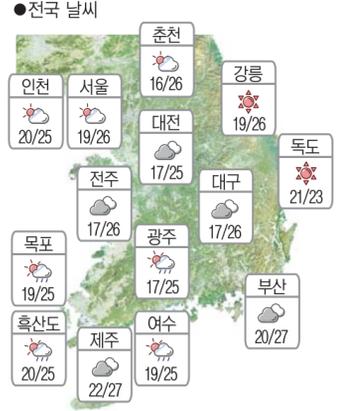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현재까지 39명 처벌 대상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 인허가와 안전 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1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본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안공항이 개항할 당시 공항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거나 개항 이후 안전과 관련한 시설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단벽을 활주로 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명이다. /안재영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8 해질 18:15 🌙달돋이 15:32 달짐 00:37

●광주·전남 날씨

광주	흐려져	17/25	장성	흐림	17/25
목포	흐려져	19/25	보성	흐려져	16/25
여수	흐려져	19/25	함평	흐려져	17/26
나주	흐려져	16/26	순천	흐려져	18/27
완도	흐려져	17/27	영광	흐려져	17/26
구례	흐림	16/25	진도	흐려져	17/26
강진	흐려져	16/27	흑산도	흐려져	20/25
해남	흐려져	16/27	고흥	흐려져	16/27
광양	흐려져	18/27	담양	흐림	17/26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해	앞바다(북) 1.0-2.0	1.0-3.0
남해	앞바다(남) 1.0-2.0	1.0-3.0
남해	앞바다(동) 0.5-0.5	0.5-1.0
남해	앞바다(서) 0.5-1.0	1.0-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9:01	04:08	05:14	00:14	06:04	00:57
목포	22:23	15:09	18:24	10:58	19:11	11:57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3일(금)	☁	17/23
4일(토)	☁	20/27
5일(일)	☁	21/27
6일(월)	☁	21/27
7일(화)	☀	19/26
8일(수)	☀	19/26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경찰, ‘출장비 부풀리기’ 전남도의회 압박
경찰이 국의 출장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도의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무안군 소재 전남도의회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국의 출장비 지출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의 출장 9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으며 전국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서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 담당 공무원 10명과 여행사 관계자 10명 등 총 2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여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담양송이마을 토지 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자동화시설” 로 누구나 가능한 “고수입” 보장합니다. 참송이 버섯재배로 월소득 500만원 이상

은퇴후 노후걱정 담양송이마을에서 준비하세요!

- * 수익형 전원주택(전원생활+소득)
- * 전원주택, 농가주택 건축, 창고시설
- * 참송이버섯 재배사(스마트팜)
- * 세컨하우스, 주말농장(체류형 쉼터)

참송이 버섯

- 자연산 송이와 같은 고품질 버섯
- 자연산 송이처럼 생식할 수 있음
- 최신 자동화 시설 - 노동력, 기술력 절감
- 35일 간격 수확 - 자금회전이 빠름
- 암 치료제 - 베타그루란 26.2% 함유
- 참송이 재배교육 - 10년 이상 참송이를 재배한 경험자들이 직접 지도해 드립니다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송이마을 ☎ 062)222-0037 / H. 010-4323-5252

전남 담양군 대평면 성곡리 31-6번지